

제 2 장 지정학적 맥락 속에 세계

요약

2.1 지구적 지정학 구조를 정의하기: 모델스키의 세계 리더십 모델을 이용하고 질문하기

전통적으로 지정학자들은 자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편견에 찬 견해를 지원하려고 역사적-이론적 객관성을 들먹이며 모호한 주장을 했던 것이다. 국가 중심의 지정학 시각과 지리결정론을 신봉한 것은 한 국가의 지리 규모, 입지, 국내 사정이 국력을 결정한다(P67-69).

국력을 이해하고 지구 지정학적 맥락을 이해하자면 특정 국가의 경제, 군사, 인구 등 요소들을 의제를 규정하는 국가 능력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람시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에 이데올로기적 힘을 행사(行使)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구적¹ 의제 설정에 대한 이런 토론에는 특히 두 이론의 영향력이 크다. 첫째는 Immanuel Wallerstein 의 헤게모니 개념² 이고, 둘째는 다룰 모델스키(1987)의 세계

¹ 여기서 '지구적 의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의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²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서 헤게모니(hegemony)는 단순히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핵심국가가 생산·무역·금융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규칙과 국가 간 질서를 주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월러스틴은 17 세기 네덜란드, 19 세기 영국, 20 세기 미국을 대표적인 헤게모니 국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의 기술과 생산방식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고 세계질서 유지에 필요한 군사적·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면 기존의 우위는 점차 약화된다. 따라서 헤게모니는 영구적인 지배 상태가 아니라 핵심국가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형성되고 쇠퇴하는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리더십 개념이다(P70-71).

모델스키는 권력을 지구적 접근의 **함수**, 즉 세계 전역의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수로 본다. 이런 힘을 행사하려면 대양(大洋)의 통제해야 해서 모델스키는 한 나라가 세계 강대국을 대양 항행능력을 자신의 통제 안에 집중하는 능력³으로 파악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리더십이 단순히 물질적 권력 측정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지정학의 결정적 요소는 표상이란 점을 명심하고 모델스키는 세계 최강국을 리더라고 묘사한다. 헤게모니 국가나 초강대국이란 말이 지배와 강압으로 남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리더는 자발적 추종자들을 거르린다는 말이다.

〈표 2.1〉 세계 리더십의 순환

세계 지도국	연도	세계전쟁	도전국가	동맹 파트너
포르투갈	1500	1494~1516	스페인	네덜란드
네덜란드	1600	1580~1609	프랑스	영국
영국	1700	1688~1713	프랑스	러시아
영국	1800	1792~1815	독일	미국 등 동맹국
미국	1900	1914~1945	소련/알카에다	NATO/자발적 동맹

자료: Modelski(1987), *Long Cycle of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각각의 세계 리더십 순환은 약 100 년 가량 지속하고 대충 25 년간으로 나뉘지는 4 국면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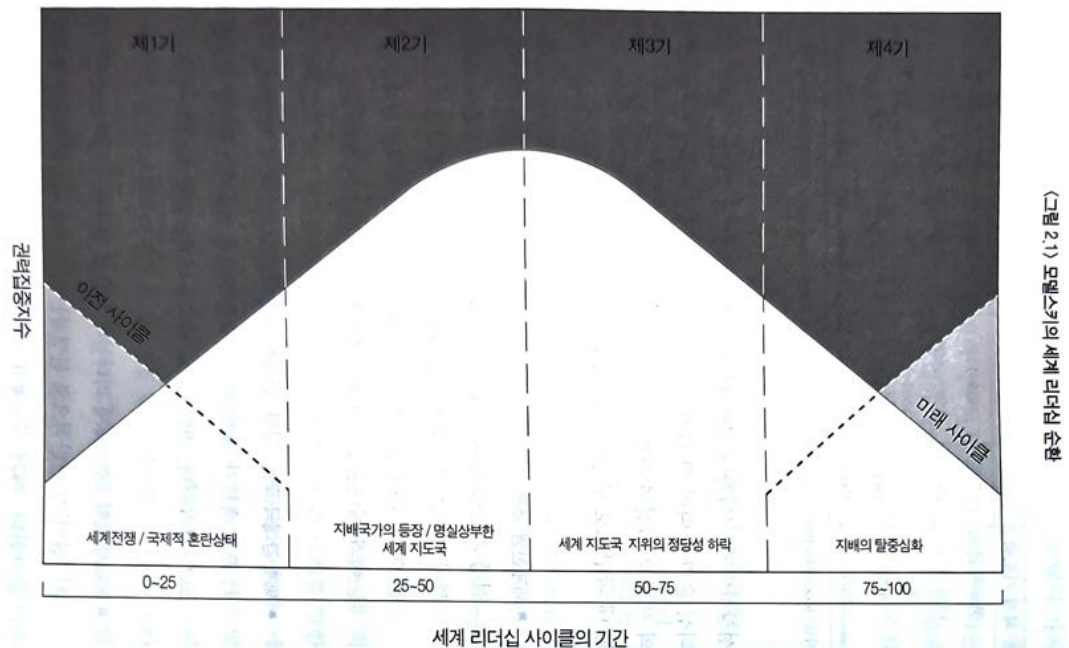
-> 세계전쟁 국면: 세계 전쟁 기간을 통해 결정되고 강제한 물질적 능력과 이데올로기적 나라가 등장한다.

-> 세계 강대국 국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새 의제, 새 제도가 안착된다.

³ 해군과 민간 상선대의 총 톤수 합산으로 측정한다.

-> 정당성 하락 국면: 시간 지나면 반대가 증가하고 지도국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지만 상대적으로 강하다.

-> 탈집중화 국면: 지도국이 점차 약해지고 공격에 훨씬 취약해지며 정당성은 점차 의문시되고 도전은 더욱 강해진다.



모델스키의 모델은 표상의 역할을 가장 중시하고 언어를 엄격하게 사용하여 세계전쟁을 'systemic decision'으로 정의하는데 세계전쟁은 차기 세계 지도국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점에서 도구적이다(P76) ⁴. 모델스키에 의하면 지도국은 협소한 국가적 자기 이해(利害)가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구 안보를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비로운 행위자이다.

⁴ 국제체제에는 세계 지도국을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스키는 세계전쟁을 차기 세계 지도국을 결정하는 일종의 가혹한 '선거'로 이해한다. 여기서 '체제적 결정(systemic decision)'은 특정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세계전쟁의 결과를 통해 국제체제 차원에서 새로운 지도국과 세계질서가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전쟁이 '도구적'이라는 것은 전쟁 자체를 긍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전쟁이 차기 지도국을 선별하고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적·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중용한 것은 아마도 모델스키가 이 모델을 적용하여 변별해내는 역사의 패턴일 것이고 영국은 세계 리더십의 순환을 연이어 두 번이나 탈 수 있었다. 이 모델의 지정학은 명백하고 만약 영국이 두 번 탔다면 미국이라고 그렇게 못할 법이 없으며 21 세기도 역시 미국의 세기가 될 수 있다⁵(P76).

2 차 세계대전 종전되자 미국은 국민적 자결권과 발전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지구적 의제를 제시했고 지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 IMF, UN, NATO 와 같은 지도국의 의제를 실행에 옮겼고 정당화시켰다. 도전은 소련(이념과 군사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유럽의 구식민지 통제를 거쳐 20 세기 끝나갈 무렵 반미 테러와 이후의 반테러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델스키 모델에서 냉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냉전은 모델스키 모델에 대하여 도전이 있다. 냉전은 모델스키 모델이 제시한 것 보다 훨씬 일찍 도래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란 외양을 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자본주의에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세계 리더십 시대에서 결정적 사건은 소련의 해체와 철 장박의 붕괴였다. 냉전은 모델스키 스타일의 세계전쟁에서 승리를 재현하므로 뒤이은 세계 리더십의 두 번째 순환이 시작된다. 하지만 소련과 공개적인 갈등이 없었고 또 미국이 현재 당면한 도전에 비춰보면 두 번째 리더십 순환 가운데 있다는 해석을 수긍하기 어렵다(P78-79). 냉전에 대한 해석은 E. P. Thompson &Georgy Konrad 가 도움을 얻을

⁵ 이 대목에는 모델스키의 실제 문제의식과 규범적 입장이 암묵적으로 드러난다. 영국이 두 차례에 걸쳐 세계 지도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를 근거로 미국 역시 21 세기에도 세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의 모델은 표면적으로는 세계정치의 역사적 순환을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적 지위와 이익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수 있는데 2 강대국이 반제국주의란 망토를 내세우진 했지만 냉전을 핑계로 신생 독립국가들을 정치적-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익을 취했던 지정학적 드라마로 해석한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냉전이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중대한 도전을 의했는데 세계 리더십이 활성화된 국면은 줄어들었고 정당성의 하락 국면은 확장되었다. 냉전이 소련과 미국에 모두 이득이 되었다는 주장은 안정화의 시기가 아니라 탈집중화 시기의 시작이 바로 소련의 붕괴로 특징지어진다는 해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모델스키 모델에서 유럽연합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탄생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을 재건하려던 미국 계획의 일부였다. 이유는 서유럽의 통합이 소련의 도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세계 지도국과 경제적-정치적 유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분규(紛糾)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가 1956 년에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려 했던 시도였다. 유럽연합의 심화와 팽창으로 자신들의 지구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합의⁶를 토론했다.

한편으로 유럽연합은 모델스키식으로 말하면 세계 지도국의 정당성 하락의 한 형태로 보인다. 다른 한편, 현재 유럽군 웹사이트⁷를 보면 "1993 년에 유럽연합 문서는 유럽군의 역할을 유럽연합과 NATO 의 지정학적 구조 내로 명백히 규정했다".

2006 년에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신호는 복합적이고 유럽은 미국의 행동에 말로만 반대하면서 정치적 결정이나 유럽군과 같은 제도 발전은 세계 지도국의 의제에

⁶ 지구 온실가스 방출문제와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전쟁은 그 예시이다.

⁷ www.euro-corps.org/site/index.php?language=en&content=home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2.2 세계 지도국의 등장과 하락의 지정학: 현단계 지정학의 맥락?

모델스키 모델은 2006 년 지구 지정학의 주요 쟁점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물리친다. 미국은 압도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첫째, 세계 지도국으로 행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델스키 말대로 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 둘째는 나머지 국가들 이러한 질서를 원할까? 이들 나라들이 세계 지도국이 강제한 질서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의제 가운데 혼돈이나 불안정을 겪게 될까?

〈그림 2.2〉 세계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와 공급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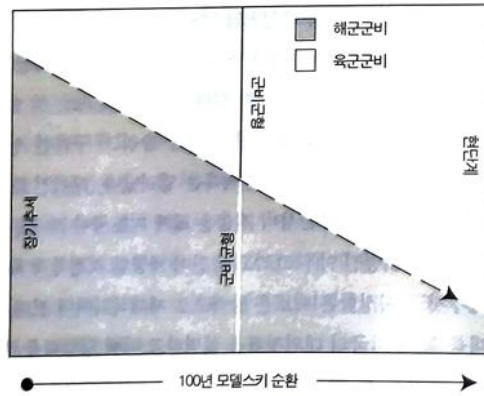
모델스키의 국면	세계질서에 대한 선호도	세계질서의 공급 가능성
세계전쟁	높다	낮다
세계 강대국	높다	높다
정당성 하락	낮다	높다
탈집중화	낮다	낮다

그림 2.2 참조로 순환의 4 국면 속에서 선호의 균형과 질서의 가용(可用) 여부를 비교할 수 있다. 세계정치의 장기순환은 세계전쟁 이후 지도국이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의 정당성과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외교적 반발이 조직적인 군사적 도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AI).

제국의 과잉팽창

지구 여론은 세계 지도국의 하락 과정을 설명하는 한 요순일 뿐이고 지도국의 군사비 수요와 이를 감당할 지불할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조점이 주어졌다.

〈그림 2.3〉 제국적 과잉팽창



순환의 지도국 국면에서 지구 의제가 실행하는 것은 지구적 해군력이다. 그러나 순환이 진행되면 지도국은 육지에서의 갈등에 점차 노출된다. 육지에서의 갈등의 종대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비용이 많이 든다.

모델스키 모델로 본 미국 지정학의 대중적 표상을 해석하기

제국의 과잉팽창은 육지 전투의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해군 주둔의 효능성이 감소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Kennedy, 1998). 이 아이디어는 1980년대 꽤 유행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언어로 보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지도국이 아니라 소련을 파산시켰을 뿐이다. 냉전이 끝나고 지구 지정학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했는데 첫째 Francis Fukuyama(1992)는 국무성 근무(?) 시절에 '역사'는 끝났다고 종말이란 자유주의의 우위가 전체적으로 수용된 지금 모든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해소되었다 주장했다. 모델스키의 틀에서 정당성 하락이나 탈집중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로버트 카플란이 <다가오는 무질서 상태>(Kaplan, 1994)와 뒤이은 글들은 세계 지도국의 의제가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실패했다고 했다. 셋째는 새뮤얼 헌팅턴의 논쟁적이지만 경험적 오류가 있는 <문명의 충돌>(1993) 역시 후쿠야마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저서 <제국>(Empire, Hardt and Negri, 2000)에서

9.11 이후 미국을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군사적 힘을 이용해 영토를 통제하는 제국 권력으로 파악한다.

제국적 과잉팽창의 증거?

표상은 지정학의 한 단면일 뿐이다.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이 2006년에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할 수 있다. 제국적 과잉팽창이란 렌즈로 정책형성과정과 그 정책을 해석할 수 있다. 미군 병력의 배치를 보면 세계 리더십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미군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미군 군력 재편성의 의미는 미군이 자신의 힘에 도전하는 경우 냉전 시기보다 훨씬 유연하고 넓은 지역을 맡는다는 것이다.

〈표 2.2〉 미군의 배치

미국	유럽	동아시아/ 태평양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반구 (미국 제외)	작전명 이라크 자유	기타 주둔군
1,166,000	114,300	96,900	5,900	900	1,700	167,300	37,300

자료: Kane (2004).

모델스키 모델로 해석한다면 기존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미군이 이제 위협의 성격과 위치를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겠다.

모델스키 모델이 투명한 크리스털 그릇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화한 역사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현단계의 사건들을 보면서 전망을 제공하고자 할 뿐이다.

2.3 유산, 변화, 세계 지도력: 모델스키 모델의 피드백 시스템

모델스키 모델에서 토론할 마지막 특징은 피드백 시스템이다. 2 개의 상호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을 확인하고 하나는 발전의 고리로 지도국들은 오고 가지만 혁신의 유산은 남는다는 점이다. 즉 특정 국가가 세계 지도국으로서 지위를 상실해도 그

국가가 건설한 제도와 아이디어⁸는 지정학적 경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피드백 시스템은 도전자의 형성과정과 신생 세계 지도국의 확립을 점증하는 규제적 고리이다. 모델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어도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패턴을 제시한다. 그 패턴에 따르면 차기 세계 지도국은 도전국이 아니라 도전국에 맞서는 세계 지도국의 동맹세력 가운데 한 나라였다.

2006 년 단계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모델스키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델스키의 역사적 사례는 지정학적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이었을 시기에서 나온 것이다. 여타 지정학적 행위자들은 무시되었다.

2.4 모델스키 모델에 대한 찬반영론

모델스키 모델은 역사적 시각에서 특정한 사건을 놓고 볼 때 도움이 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1 회성 사건이 아니고 폭넓은 과정과 경향 속에서 그 사건을 평가한다면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 중요성과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시뮬거리 중 하나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의 경우처럼 철학적이라는 점이다. 먼저의 문제가 역사결정론의 논로문제이다. 과거 사건에서 세계 리더십의 순환론적 패턴을 확인했다고 해서 미국의 세계 리더십 하락이 불가피하다거나 결정론적이라는 점을 예단할 수 없다.

비판받는 또 다른 부분은 지정학에 대한 그의 관념이다. 모델은 고전적 지정학의 전통인 국가중심주의를 따른다. 모든 나라가 지정학적 행위자(지도국들, 도전국들, 동맹국들)이다. 그리고 초점을 두는 나라는 모두 부강국이다. '지구 남부'의 가난한

⁸ 영국의 제도와 프랑스의 아이디어는 그 사례이다.

나라들은 도전, 전쟁, 지도력의 체계와 관련이 없다.

모델스키 지정학의 지리적 관념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이고 국가의 영토성을 정치의 유일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구의 일부분에 국한해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권력은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다. 권력 측정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시선을 던질 필요가 있다. 군사력에서 명백한 것은 크루즈 미사일과 위성통신의 시대에 해군력이 여전히 중요할까 하는 문제이다.

모델의 핵심이자 동시에 권력의 개념규정은 지구 접근성이다. 위성체계, 원거리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지구 어느 곳의 목표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지구 접근성'의 의미를 재규정한다.

또 다른 쟁점은 권력측정과 지도국의 정치 방식 사이의 모순이다. 물질적 수단이나 선박 총톤수의 기초하는 반면 정치과정은 이데올로기적 힘, 즉 세계 지도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정치 의제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모델스키 모델의 동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driving force'이다. 한 연구는 세계 강대국의 등장과 하락을 기술과 경제의 지구적 변동에 연계시킨다(Modelskey & Thompson).

마지막 질문은 모델스키는 지정학자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자인가? 지정학자라면 자국의 국익을 자저울 특정의 대외정책 의제를 제시하려는 정치인이다. 사회과학자라면 데이터를 모아 해석하되 자신의 사회 입지나 국적성의 편견을 넘어서려 노력해야 한다.